

신안 애기동백꽃 축제 ‘대박’ 전국 관광객 1만5천명 몰려

천사섬 분재공원서 개최…시화전 등 볼거리 풍성

신안 애기동백꽃 축제가 전남의 대표 경관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일 신안군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암해읍 송공산 ‘천사섬 분재공원’에서 막을 올린 제2회 신안 애기동백꽃 축제에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다.

2일 현재 관광객은 1만5000여명에 달한 가운데 눈보라와 추위가 닥친 지난 28~29일 휴일에는 2000여명이 찾아 눈꽃속의 아름다운 동백의 자태와 색감을 만끽했다.

특히 송공산 4㏊의 분재공원에 있는 200여종 5000여 그루 애기동백꽃의 개화율이 70%에 육박하면서 절

점은 이루자 관광객들의 증가 속도도 배가되고 있다.

분재공원내 1.1km에 달하는 동백꽃 길을 걷다보면 형형색색의 애기동백이 관광객들의 감탄을 자아낸다.

또한 축제장에는 40종의 수종과 800여점의 각종 분재와 쇠병철분재 기념관 등이 마련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오는 12일까지 열리는 이번 애기동백꽃 축제는 200여 품종의 희귀동백 분재를 비롯해 신안 1004분인협회의 시화전 및 어린이들의 그림을 볼 수 있는 전시회도 열리고 있다.

애기동백을 테마로 한 이번 축제는

/신안=이상선기자 sslee@

송공산 남쪽기슭 1만7000㏊의 넓은 바다경원이 내려다보이는 경관을 배경으로 흰색, 분홍색, 빨간색 애기동백꽃이 활짝 피 자연과 예술이 만나는 환상적인 축제로 평가받고 있다.

송공산은 6㎢의 등산로와 웨딩 산책로가 조성돼 있어 산행과 동백꽃 축제를 동시에 즐길 수 있다는 점이 관광객들을 유인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광주에서 온 서장일씨는 “산과 바다 그리고 눈 속에 수줍은 듯 살며시 내미는 빨간 애기동백꽃이 함께 어우러져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제공했다”며 “다시 찾고싶은 겨울축제로 기억하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 1일 천사섬 분재공원을 찾은 관광객들이 각양각색의 분재를 감상하고 있다.

〈신안군 제공〉



목포상의 신년인사회

목포상공회의소(회장 김호남)는 2일 호텔현대 컨벤션홀에서 신년인사회를 갖고 희망찬 새해 설계와 함께 소통과 협력을 강조한 회의를 김호남 회장은 “올해 더 많이 역량을 모아 나갈 것을 다짐했다. 신년인사회에는 박지원 민주통합당 전 원내대표, 이낙연·주승용·주영순 국회의원과 정종득 목포시장, 도·시의원, 언론인, 기업인, 각급 기관단체장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kwangju.co.kr

목포, 도서민 여객선 운임비 최대 50% 지원

7월부터 화물차·승용차도

목포시는 올해부터 도서민 여객선 운임비를 20%에서 50%까지 확대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달리도와 유통, 외달도 등 도서지역 주민들이 여객선을 이용할 경우 기존 달리도와 유통은 700원, 외달도는 900원씩에서 유통 1800원, 외달도 2400원씩 상향된다.

또 오는 7월1일부터는 도서민 소유 차량 중 5t미만의 화물차, 2000cc미만의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에

장성군 ‘스마트 회의’ 연다 종이 대신 태블릿 PC 활용

대해서 차량운임의 20%(승용차 기준, 1회 지원액 3900원)를 연간 48회 지원한다.

목포시 관계자는 “열악한 생활환경과 교통여건을 가진 섬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부터 대폭지원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는 2012년도에 도서민 이용객 3만4135명에게 3030여만원을, 2013년도에는 2만9436명에게 2400여만원의 여객선 운임비를 지원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장성군은 올해부터 종이 대신 태블릿 PC를 활용한 스마트 회의를 연다. 2일 밝혔다.

장성군은 종이 문서를 없애 지원을

아끼고 회의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회의시스템을 바꾸고 공무원 42명에

게 태블릿 PC를 지급했다.

장성군은 올해 12월 한 달간 시범운영을 거친 공무원들은 태블릿 PC로 참고 자료를 열람하고 메모도 할 수 있어 편리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담양군, 국·도비 사상최대 확보

정부·전남도 공모사업 등 72건 선정 782억 받아

담양군이 지난해 각종 공모사업 및 기관 평가에서 빛나는 성과를 달성했다.

2일 담양군에 따르면 정부 부처와 전남도 등에서 주관한 각종 공모사업 및 평가에서 72건에 국·도비 782억 4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는 2012년 431억원보다 351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부족한 지방재정에

보충에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친환경 지속가능도시 조성사업에

서 500억원을 비롯해 읍소재지종합

정비사업(천변·담주지구개선사업)

에 10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환경분야에서 성과가 좋았다.

문화·체육·관광분야에서는 담양

군체육센터건립사업 80억원, 예코하

이테크 농공단지 스포츠타운 조성사

업 15억원, 문화생태탐방로 스토리텔

링사업 1억9000만원 등 16건에 103

억2000만원을 확보했다.

농업분야는 농촌지도기반조성지

원사업 10억7천만원, 광특농식품

사업 10억7천만원, 농촌체험마을지

원 4억1천만원 등 총13건 37억4천여

만원을 획득 FTA 등 어려워져 가는

농촌현실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

상된다. 이밖에 고용노동부 지역일자리 공시제 실적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비롯해 농산물 유통·식품업무평가 및 농정업무 평가 3년 연속 수상 등 각종 평가분야에서 29건의 수상실적을 올리며 6억3700만원의 사업비를 획득했다.

담양군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사업예산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이룬 것이라 군 재정에 큰 보탬이 됐다”며 “앞으로도 담양군의 특화자원을 활용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시책으로 역량을 더욱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재근기자 jjg@

저수지 52곳 준설작업

3월 영농철 이전 완료

전남도는 겨울철 농한기를 맞아 오는 3월말까지 도내 21개 시군 저수지 52곳에서 준설사업을 한다고 2일 밝혔다.

이달 초부터 준설작업에 들어가 모내기철을 앞둔 3월말까지 모두 완료 할 계획이다.

준설량은 32만㎥로 저수량 10만㎥ 저수지 3개를 새로 만들 수 있는 양이다.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582

억원을 투입해 798곳에서 준설사업을 해왔다.

현재 나주호 등 4대호를 포함 도내 평균 저수율은 63%로, 예년 평균 75%보다는 다소 낮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생산성 향상 기여”…전남도 ‘으뜸장인’ 5명 선발

전남도는 2일 산업 현장에서 공정 및 품질 개선,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표형영(大廣관 네일 팀장) 등 모범근로자 5명을 ‘2013 전남도 으뜸장인’으로 선발해 시

표형영씨

한용석씨

양두열씨

박만문씨

김문현씨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근로자에게 시상하는 것으로 1994년부터 지금까지 98명이 받았다.

수상자는 한용석(55) 포스코(50) 광양제철소 수석, 양두열(47) 금호파인비화학(47) 계장, 박만문(45) 금호타이어(45) 주임, 김문현(53) 미주제강유(53) 반장이다.

특히 이번 수상자는 대기업 임직원이 독차지했던 것과 달리 열

약한 근로기풍 조성, 노사화합을

공정 개선에 기여한 중소기업 근로자 2명이 포함됐다.

수상자들은 인사고과 반영, 포상금 지급, 국내외 연수기회 우선

부여 등 다양한 혜택과 명예를 얻는다.

/장필수기자 bungy@

착한 음식을 만드는 정성 채널A의 마음입니다.

‘이영돈 PD의 먹거리X파일’은 불량 먹거리를 고발하고 좋은 재료로 정성을 다하는 ‘착한식당’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정직한 노력으로 원칙을 지키는 식당 주인의 마음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 싶은 채널A의 마음입니다.

꿈을 담는 캔버스 채널A

채널A〈먹거리X파일〉이영돈 PD와 착한식당 〈빵드빵빠〉의 이호영 대표



스카이라이프 13
IPTV 18

채널A
www.ichannelA.com

[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 동구 북구 (CMB) 18
[광주] 동구 북구(광주방송) 20

순천 여수 여천 광양 고흥 14
나주 화순 보성 담양 구례 곡성 18

목포 신안 무안 강진 완도 16
해남 영암 진도 장흥

CHANNEL
A